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155-198  
<https://doi.org/10.29212/mh.2025..137.15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7~18세기 평안도 수군진의 변천과 연안 방어체제의 정비

박준희 | 동국대학교 대학원

- 목 차
1. 머리말
  2. 평안도 연안 방어 중요성의 증대와 미곶진 설치
  3. 평안도 수군진의 변천과 수군방어사 설치
  4. 평안도 연안 방어 강화 논의와 연안 방어체제의 실제
  5.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수군진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국제정세와 침입 주체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선 전기 평안도에 왜구의 침입이 감소하면서 이완되었던 연안 방어는 17세기를 전후로 중국 선박이 침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재조명되었다. 중국 선박은 국제정세에 따라서 범월인·수적·한선(漢船)·항당선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조선은 수군진과 수군방어사를 통해 연안을 방어하려 하였다.

17세기의 평안도 연안을 비롯한 서해 북단은 조선과 명·후금의 접경지대였기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무대였다. 그 속에서 조선의 군사적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는 향후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수군방어사 단위의 연안 방어는 18세기 이후 황해·경기

등 서해안 방어체제의 준거(準據)가 되었던 만큼 조선 후기 해방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평안도 연안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청북 연안의 접경해역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수군진과 관련한 연구는 개별적인 수군진 하나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전체적인 평안도 수군진과 연안 방어를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7~18세기의 평안도 수군진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여 당시 연안 방어체제의 실재를 살펴보려 한다.

주제어(Key Word) :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 수군진, 동강진, 황당선

원고투고일 : 2025. 10. 11. 심사수정일 : 2025. 12. 01. 게재확정일 : 2025. 12. 15.

## 1. 머리말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살펴보는 것은 17~18세기 조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안도 연안은 다소 낯선 주제로 보일 수 있다. 해상 침입이 남해안에 집중되면서 연안 방어 연구도 경상·전라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18~19세기 황당선과 해방론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며 황해·경기·충청 지역도 주목받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평안도 연안인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대담으로 평안도 연안을 국제정세와 침입 주체의 변화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평안도 연안이 조선 조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17세기였다. 17세기 초에는 해랑도 수적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어 1621년(광해군 13) 후금이 요동을 장악하자 명은 요동 남부 연안과 도서(島嶼)에 동강진(東江鎭)을 설치하였고, 많은 한인들이 서해 북단으로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평안도 연안에서는 한인들의 약탈 등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이러한 동강진 한인의 폐단은 1629년(인조 7) 모문룡이 사망하고 동강진이 불안정해지자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과 가도 함락으로 조선과 명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단절되었는데도 ‘한선(漢船)’이라 불린 명의 선박들은 끊임없이 평안도 연안으로 접근하였다. 나아가 명이 멸망한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황당선(荒唐船)의 침입이 이어지며 연안 방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렇듯 17세기 이후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 선박의 평안도 연안 침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수군진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삼남지역과 경기·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라도 수군진에 대한 연구<sup>1)</sup>와 충청도 수군진과 운영체제 관한 연구<sup>2)</sup>가 축적되었으며, 경기 지역의 수군진에 대한 연구 및 서해안 방어체제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제출되었다.<sup>3)</sup> 황해도 연안 방어체제와 수군진을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다.<sup>4)</sup> 이처럼 서해안 일대의 수군진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평안도 수군진은 연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도 평안도 수군진과 연안 방어체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권내현은 평안도 방어체제의 정비 과정을 검토하며 평안도의 방어사를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

- 
- 1) 김경옥, 「16~17세기 古今島 인근의 海路와 水軍鎮 설치」, 『도서문화』 33, 2009; 「19세기 말엽 靑山島鎮의 재편과 해양방어체제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2017; 송기중, 「조선 후기 전라도 도서 지역의 수군진 설치와 민역 관리」, 『영도해양연구』 26, 2023; 송은일, 「조선시대 가리포 수군진 연구」, 『역사와 실학』 80, 2023; 「조선시대 흥양현의 녹도수군진 연구」, 『영남학』 91, 2024; 백형대, 「1880년대 거문도진과 녹도진의 성쇠로 본 당대 수군진 설치 동향」, 『역사학연구』 99, 2025 등
  - 2) 김경옥, 「조선후기 태안 안흥진의 설치와 성안마을의 공간구조」, 『역사학연구』 32, 2008; 서태원, 「朝鮮後期 忠淸道 平薪鎮 研究」, 『중앙사론』 34, 2011; 「조선 후기 충청도 안흥진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실학』 52, 2013; 「朝鮮後期 忠淸道 所斤浦鎮의 변천」, 『역사와 실학』 61, 2016; 「조선시대 충청도 馬梁鎮 연구」, 『한국문화』 81, 2018; 송기중,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위상과 운영 실태-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가칭 「충청수사군무수첩」을 중심으로」, 『군사』 106, 2018 등
  - 3) 이민웅,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強化」, 『한국사론』 34, 1995; 배성수, 「해양과 방어 체제-조선후기 관방을 중심으로」,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2008; 임학성, 「조선후기 京畿 島嶼지역의 水軍鎮 설치와 주민 생활 양태-水軍防禦營이 설치된 영종도의 호적 자료 분석사례-」, 『역사민속학』 57, 2019; 남호현, 「고려말~조선전기 수군(水軍)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水軍鎮)의 특성」, 『해양문화재』 18, 2023; 민장원, 『19세기 海防策의 전개와 서해안 방어체제의 재편』,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5 등
  - 4)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어체제」 『한국문화』 38, 2006; 류창호, 「서해 북부 해역에서의 해랑적(海浪賊) 활동과 조선정부의 대응 —해랑도수토(海浪島搜討)(1500년)에서 백翎진(白翎鎭)설치(1609년)까지」, 『탐라문화』 51, 2016 등

안도에 두 개의 수군방어영이 설치되었음을 규명하였다.<sup>5)</sup> 송기중은 조선후기 서해안 방위태세를 분석하면서, 18세기 이후 평안도 수군방어영에서도 수조(水操)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문광균은 조선후기 중국인들의 신도 범월을 배경으로 신도진의 설치와 운영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이 월삼수토(月三搜討)를 통해 신도를 관리하려 하였던 양상, 그리고 19세기 초 미곶진을 신도진으로 이설한 배경과 그 운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신도진을 중심으로 19세기 평안도 연안 방어의 일면을 규명하였다.<sup>7)</sup>

한편 평안도 연안의 접경해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춘 선행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서인범은 서해 북단의 해역 경계와 관련하여 조선인들의 경계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경계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각각 해랑도(海浪島)와 신도(薪島)에 범월하는 양상을 정리하였다.<sup>8)</sup> 한편 장정수는 가도(槓島)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숙종대 선사포진의 가도 이설을 주목하기도 하였다.<sup>9)</sup>

이상의 선행 연구는 평안도 연안이 접경해역으로서 지니는 특징을 밝혀내고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한 방어체제의 측면에서는 평안도 수군방어사와 방어영에 대해 규명하여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여전히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에 대한 연구가 소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안도 관련 연구들이 주로 육로 방어체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평안도 연안은 비교적 관심 받

5)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연구』, 지식산업사, 2004, 104~108쪽

6)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158~163쪽

7) 문광균, 「조선후기 압록강 하안의 신도(薪島) 범월과 신도진(薪島鎭)의 설치」, 『역사와 현실』 119, 2021

8)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도서(島嶼) 문제 — 해랑도(海浪島)와 신도(薪島)를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36, 2011

9) 장정수, 「조선의 가도와 명의 동강진」, 『동북아역사포커스』 9, 2024

지 못하였다. 수군방어사 자체는 다루어졌으나 그 휘하 수군진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신도진과 같은 평안도 연안의 특정 수군진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이를 통해 다른 수군진이나 전체적인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7~18세기의 서해 복단, 특히 평안도 연안의 수군진을 중심으로 조선이 수적·한선·황당선 등 연안에 침입한 중국 선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연안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먼저 조선전기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성립되었고 왜구의 침입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나자 이완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17세기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침입이 이루어지며 연안 방어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흐름을 미곶보의 설치와 첨사진 승격을 통해 규명해볼 것이다. 다음 3장에서는 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평안도 수군진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평안도 연안은 중국 정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곳이었고 연안 방어 역시 이에 따라 정비되어 갔다. 따라서 수군진의 변천 과정을 평안도 연안에서 일어난 군사·외교적 사건과 연관 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8세기 전선 배치와 수조 시행 등 평안도 연안 방어의 강화 논의를 살펴보고, 사료를 통해 18세기 말의 평안도 연안 방어의 실재를 확인하려 한다.

최종적으로 연안 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수군진과 그 지휘체계의 변화 과정 및 배경을 규명하여 평안도의 연안 방어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의 변화상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면 17세기 평안도 연안에서 발생한 여러 군사적 사건들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평안도 연안 방어 중요성의 증대와 미꽃진 설치

조선의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는 크게 세 곳의 수군첨절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에는 선천(宣川) 선사포(仙槎浦)와 안주(安州) 노근강(老斤江), 삼화(三和) 범도포(凡島浦)에 각각 의주도 수군첨절제사와 안주도 수군첨절제사, 평양도 수군첨절제사가 주둔하였다. 병력 규모는 선사포에 1,100명과 15척, 노근강에 1,380명과 15척, 범도포에 1,000명과 11척이 배치되어 총합 3,480명에 41척이었다.<sup>10)</sup>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평안도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수군절제사를 겸하고, 아래에 3명의 수군첨절제사가 소속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3명의 수군첨사는 평안도 삼포(三浦)라 불리는 세 곳의 진을 관할하였는데, 선사포진(宣沙浦鎭)과 노강진(老江鎭), 광량진(廣梁鎭)이었다.<sup>11)</sup> 평안도의 연안 방어체제는 이 첨사진들을 기본 골자로 하여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는 본래 왜구의 침입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1397년(태조 6) 왜구가 선천(宣川)에 침입하여 성을 포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평양도와 안주도 수군만호가 왜구에 패배하여 도망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sup>12)</sup> 약 한 달 뒤에는 안주도 수군만호 박원정(朴原廷)이 병선 10척을 이끌고 왜구 24척과 전투를 벌였고 6척이 침몰당하기도 하였다.<sup>13)</sup> 이는 왜구

10) 『世宗實錄』 권154, 「地理志」, 平安道

11) 『經國大典』 권4, 「兵典」, 外官職 平安道

12) 『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5월 22일 계유

13) 『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6월 18일 무술

의 침입으로 인해 평양도와 안주도 수군만호가 이후 수군첨절제사로 승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14)</sup> 나아가 1447년(세종 29)에는 겸직이었던 안주도 수군첨절제사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렇듯 조선 건국 초에는 평안도 연안까지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15세기 말 왜구의 침입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평안도 연안 방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였다. 1479년(성종 10) 성종은 삼포가 왜인이 침략하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삼포의 수군을 각각 100명씩 차출하여 안주를 방어하도록 하고 그만큼의 군선도 혁파하였다.<sup>15)</sup> 1485년(성종 16)에는 사헌부장령 이의(李誼)가 삼포의 수군 2,683명 중 1,500명을 제외한 1,183명을 농군으로 삼도록 청하기도 하였다.<sup>16)</sup> 여기서 이의가 언급한 삼포의 수군 병력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수치인 3,480명과 비교한다면, 평안도 수군이 이미 감축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1414년(태종 14)을 기준으로 평양도·안주도는 수군첨절제사였고, 의주도는 수군만호였다. 『太宗實錄』 권 27,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

15) 『成宗實錄』 권112, 성종 10년 12월 1일 임자; 권185, 성종 16년 11월 24일 신미

16) 『成宗實錄』 권184, 성종 16년 10월 25일 임인

〈그림 1〉 17세기 평안도 수군진 및 연해고을



\* 1919 「조선지형도」와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수군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운용하는 군선 또한 점점 감소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선사포, 노근강, 범도포의 군선이 각각 15척, 15척, 11척이었던 것에 비해 『경국대전』의 군선 수는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표 1〉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평안도 군선 수

	대명선	중명선	소명선	소계	대명선 무군	중명선 무군	소명선 무군	소계
선사포진	1	5	1	7			7	7
노강진	1	5	2	8	1	3	4	8
광량진	2	5	1	8			5	5
합계	4	15	4	23	1	3	16	20

\* 출처 : 『經國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 단위는 척(隻)

〈표 1〉과 같이 예비선인 무군선(無軍船)을 제외하고 운용하고 있는 군선은 선사포진이 7척, 노강진이 8척, 광량진은 8척에 불과하였다. 이는 평안도에 왜구의 침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군의 규모가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군선 또한 병력이 할당되지 않은 무군선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전기 평안도 수군은 점차 감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안도 연안 수군진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수군 규모의 감축뿐 아니라 진의 이설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다. 1509년(중종 4) 유순정(柳順汀)은 선사포진을 용천 밀곳(蜜串)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삼포의 선군에 위급한 일이 없으니 압록강의 물길을 막는 역에 동원하자고 주장하였다.<sup>17)</sup> 특히 이진(移鎭) 주장은 중국 사람과 조선 사람이 몰래 서로 왕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포진을 용천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신도의 중국인 범월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 『中宗實錄』 권9, 중종 4년 9월 29일 무오

당시 압록강 하구의 신도에는 중국인이 범월하여 거주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sup>18)</sup> 신도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불법적인 교역이 이루어졌고, 해랑도의 중국인들이 수적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sup>19)</sup> 이렇듯 명과의 접경지대에서 범월 문제가 나타나자 조선은 명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국인들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평안도 연안 방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선사포진을 용천의 밀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찰사 및 절도사로 살펴 결정하도록 하였다.<sup>20)</sup> 이후 병조에서 선사포는 네 고을의 요충지이기에 가볍게 이진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결국 선사포진 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1)</sup>

선사포진 이설은 무산되었으나 범월과 불법 교역을 차단하기 위한 진보 설치는 별도로 추진되었다. 병조가 진보 개설에 반대한 것은 진보 설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선사포진 이설과 인산진(麟山鎭) 병력 분산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유순정은 용천 미을곶(彌乙串)<sup>22)</sup>의 백성들이 중국 사람과 가까워 배를 타고 물품을 매매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루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직후 평안감사 정광세가 미을곶 인근에 보루를 설치할 만한 곳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강변 보의 예에 따라 권관을 보내도록

18) 이와 관련해서는 서인범, 앞의 논문, 2011; 문광균, 앞의 논문, 2021 참조

19) 『中宗實錄』 권57, 중종 21년 11월 16일 을미; 권62, 중종 23년 8월 20일 기미

20) 『中宗實錄』 권9, 중종 4년 윤9월 1일 경신

21) 『中宗實錄』 권10, 중종 4년 12월 6일 계사

22) 여기서 유순정이 언급한 미을곶은 앞서 나온 밀곳과 같은 곳이다. 앞서 밀곳에 선사포진 이설을 반대한 병조의 기사에서부터 밀곳을 미을곶이라고 언급하였고, 주장한 유순정 본인의 언급에서도 밀곳과 미을곶이 혼용되었다. 『中宗實錄』 권9, 중종 4년 9월 29일 무오; 권10, 중종 4년 12월 6일 계사; 권12, 중종 5년 8월 7일 경인

23) 『中宗實錄』 권12, 중종 5년 8월 7일 경인

청하였다.<sup>24)</sup> 이를 통해 미을곶에 진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후 용천의 미곶보(彌串堡)가 주목된다.

1528년(중종 23) 신도에 사는 중국인과 관련한 문제로 파견된 경차관 임준(林峻)이 미곶보(彌串堡)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sup>25)</sup> 또한 1554년(명종 9)에는 목책만 있는 미곶(彌串)에 축성을 주장하면서 중종대 이미 축성이 결정되었었다는 언급이 있다.<sup>26)</sup> 이를 통해 짐작해 보자면 중종대 미을곶에 진보를 설치하였고, 이 미을곶은 이후의 미곶과 같은 곳으로 미을곶에서 ‘을(乙)’자가 탈락하여 미곶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신도의 범월과 불법 교역 문제로 인해 진보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용천 미곶보가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미곶보의 설치는 중국인의 평안도 연안 침입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점점 평안도 연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7세기 미곶보는 수군첨사진으로 승격되어 해랑도 수적을 방어하고 요동 연안으로 연결되는 수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첨사진으로 승격되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초 해랑도 수적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해랑도가 점차 중국 망명자들의 소굴로 변모하였기 때문이었다.<sup>27)</sup> 해랑도 수적은 미곶에서 양곡을 수송하던 선박을 습격하거나,<sup>28)</sup> 황해도 연안까지 진출하여 약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sup>29)</sup> 심지어는 수적들에게 병선을 탈취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sup>30)</sup>

24) 『中宗實錄』 권12, 중종 5년 9월 27일 경진

25) 『中宗實錄』 권64, 중종 23년 11월 20일 무오

26) 『明宗實錄』 권17, 명종 9년 10월 22일 기축

27) 『宣祖實錄』 권209, 선조 40년 3월 14일 정축

28) 『宣祖實錄』 권164, 선조 36년 7월 1일 을묘

29) 『宣祖實錄』 권192, 선조 38년 10월 26일 정묘

30) 『宣祖實錄』 권209, 선조 40년 3월 13일 병자

해서 수적이 자주 나타나 조정에서 신칙(申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조선은 이를 요동에 이자(移咨)하거나 명 조정에 주문(奏文)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였다.<sup>31)</sup> 출신 박훈(朴薰)은 중국 사람들이 광양진까지 수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랑도 수적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바로 명에 이자하지 않아도 해랑도의 수적을 포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아뢰었다.<sup>32)</sup>

결국 조선은 명 조정에 이자하지 않고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1607년(선조 40) 4월 28일에 강효업(康孝業)을 미곶첨사로 삼았다는 것을 통해, 이 시기를 전후로 미곶보를 첨사진으로 승격시켰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33)</sup> 이때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이 시기의 미곶진은 육군첨사가 아닌 수군첨사진이었다.<sup>34)</sup> 첨사진으로 승격된 이후 미곶첨사 강효업과 철산군수 유민(柳旻)은 해상에서 수적 3척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수급 13급을 베는 등의 전과를 올렸는데, 조선군도 10명이 전사하고 군수와 첨사도 중상을 입었다.<sup>35)</sup>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이 해랑도 수적의 평안도 연안 약탈을 막기 위해 미곶보를 수군첨사진으로 승격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1621년 후금이 요동을 점령하면서 육로가 단절되자 미곶진은 명과의 연결 통로가 되었고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sup>36)</sup> 미곶은

31) 『宣祖實錄』 권214, 선조 40년 7월 1일 신묘

32) 『宣祖實錄』 권211, 선조 40년 5월 2일 갑자

33) 『宣祖實錄』 권210, 선조 40년 4월 28일 경신

34) 문광균, 앞의 논문, 2021, 207쪽; 이후에 미곶진 수군첨절제사로 언급한 기록이 보인다. 『承政院日記』 36책, 인조 10년 4월 25일 임진

35) 『宣祖實錄』 권213, 선조 40년 윤6월 19일 경진; 『亂中雜錄』 권4, 정미 선조 40년

36) 사신의 출항지는 석다산(石多山), 청천강, 선사포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모두 용천 연안을 경유하는 연안항로를 사용하였다.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대명(對明) 해로사행(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한국실학연구』 21, 2011; 정은주, 「조선과 명의 대외관계와 사행 노정의 변화」, 『한국고지도연구』 16, 2024

명으로 연결되는 해로의 시작점으로 강조되었고,<sup>37)</sup> 조선과 명의 사신·차관 또한 상당수 이곳에 상륙하였다.<sup>38)</sup> 유진증(俞晉曾)은 이곳이 바다로 나가는 입구임을 강조하면서, 명 사신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용천을 부로 승격시켰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sup>39)</sup> 이렇듯 조선과 명의 사행이 연안항로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이곳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평안도 수군진의 변천과 수군방어사 설치

다음은 이곳진의 설치 이후 17세기 평안도 연안 수군진의 변천 과정과 수군방어사의 설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군진에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인조대였다. 인조반정 직후 갑작스럽게 선사포진·노강진·광량진이 헐파되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된 파편적인 사료들을 종합하여 그 배경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당시까지는 세 곳의 수군첨사진이 존속하고 있었다.<sup>40)</sup> 또한 1625년(인조 3) 2월에 전 만호 이맹(李孟)이 노강첨사로 제수된 것을 통해, 이 시점까지 노강진이 아직 헐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세 첨사진이 헐파되었던 정황

37) 『光海君日記』 권142, 광해 11년 7월 10일 신묘

38) 『光海君日記』 권165, 광해 13년 5월 29일 경오; 권167, 광해 13년 7월 26일 을축; 권175, 광해 14년 3월 12일 무신

39) 『光海君日記』 권66, 광해 13년 6월 4일 갑술

40) 이괄의 난 당시, 1월 22일 노강첨사 이경정(李慶禎) 등이 안주에 입성하였고 광량첨사 장훈(張暉) 등은 평양에 입성하였다. 23일에는 선사포첨사 이택(李澤) 등도 집결한 모습이 확인된다. 『續雜錄』 권2, 갑자 천계 4년

41) 『承政院日記』 4책, 인조 3년 2월 4일 계미

은 1627년(인조 5) 이후 등장한다. 1627년 8월 모문룡 병사의 약탈이 심해 조방장을 노강으로 보내 방어하였다고 하며, 노강을 방어하는 노강첨사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sup>42)</sup> 또한 1630년(인조 8) 5월에는 노강별장 신원주(申元柱)가 한인을 사로잡았다는 기사가 등장한다.<sup>43)</sup> 이는 첨사가 아닌 별장이 파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접적으로 첨사진이 혁파되었다는 언급은 1635년(인조 13)에 등장한다. 안민선(安敏善)은 “근래에 변장(邊將)을 혁파하여 선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묘년의 난리에 이르러서는 육로가 단절되고 수로마저 통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정묘호란 이전 이미 첨사진이 혁파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44)</sup> 세 곳의 첨사진이 정확히 언제 혁파되었는지는 1630년 광량진이 7년 만에 복설되었다는 언급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sup>45)</sup> 이를 통해 첨사진들이 혁파된 시기는 각 진별로 상이할 수 있겠지만, 대략 1624년 이괄의 난 직후부터 1627년 정묘호란 직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46)</sup>

수군진을 혁파한 배경 역시 명확하지 않다. 관련하여 김자점은 선사포진과 노강진이 ‘난(亂)’ 때문에 혁파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47)</sup> 주목되는 것은 1630년 부원수 정충신의 장계이다. 정충신은 모문룡이 동강진을 개설한 이후 ‘해방에 걱정이 없어졌다’하여 선사포진·노강진·광량진을 모두 철폐(撤罷)하였고 이 일대 해문(海門)에 출입을 금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인들이 초도와 석도에서 솥을 굽고 선박을 건조하면서 선

42) 『仁祖實錄』 권17, 인조 5년 8월 16일 기유

43) 『承政院日記』 30책, 인조 8년 5월 23일 임인

44) 『承政院日記』 46책, 인조 13년 1월 29일 경진

45) 『仁祖實錄』 권23, 인조 8년 12월 24일 무진

46) 선사포진과 노강진, 광량진이 혁파된 원인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밝혀낼 수 없었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47) 『承政院日記』 50책, 인조 13년 9월 27일 갑술

재가 바닥났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sup>48)</sup> 이를 통해 동강진 개설 이후 수적과 관련한 문제가 줄어들면서 수군진을 철폐하였지만 오히려 동강진의 폐단으로 인해 다시금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혁파된 선사포진과 노강진, 광량진의 복설이 이루어진 것은 모문룡 사후 가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평안도 연안에 피해가 발생한 시기였다. 먼저 1630년 4월 유흥치의 난<sup>49)</sup> 이후 노강의 연변에서 표문이 없는 한인들이 노략질을 하자 노강별장 신원주가 삼판선 3척을 붙잡아 한인 23인을 안주에 구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sup>50)</sup> 이후 당시 유흥치 토벌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총융사 이서(李曙)가 선사포진과 노강진, 광량진을 복설하여 바다를 방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평안도의 형편상 불가하다고 반대하여 무산되었다.<sup>51)</sup> 하지만 같은 시기 수군을 이끌고 광량에 주둔하고 있던 부원수 정충신 또한 광량진의 복설을 주장하였다.<sup>52)</sup> 이처럼 광량진 복설 주장이 반복되자 결국 광량진을 먼저 복설하였다. 토벌군이 해산된 이후인 1630년 12월에 평안감사 민성징(閔聖徵)은 황해도의 소나무를 사용하여 광량진의 군선을 제조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는 이전에 광량진 복설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sup>53)</sup>

48) 『晚雲集』 권2, 論軍務劄, 庚午八月在廣梁時

49) 1630년 4월 유흥치가 군사를 일으켜 진계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본래 유흥치와 진계성은 모문룡 사후(1629) 동강진을 동서(東西) 2협으로 나누어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둘 사이에 불화가 있던 와중에 유흥치는 요동에 남아있는 가족 문제로 홍타이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이것이 진계성에게 발각되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유흥치의 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텝키카이, 「유흥치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연구』 19, 2015 참조.

50) 『承政院日記』 30책, 인조 8년 4월 17일 병인; 5월 23일 임인

51) 『仁祖實錄』 권23, 인조 8년 8월 3일 경술

52) 『晚雲集』 권2, 論軍務劄, 庚午八月在廣梁時

53) 『仁祖實錄』 권23, 인조 8년 12월 24일 무진

광량진이 복설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사포진과 노강진의 복설 주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1635년 평안도 용천의 전 군공주부 안민선이 평안도의 방어책을 아뢰면서 복설을 주장하였다.

연변(沿邊)의 선사포(宣沙浦), 노강(老江) 등지는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선로(船路)를 설치하여 양항(糧餉)을 수송하였는데 근래에 변장(邊將)을 혁파하여 선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묘년의 변란에 이르러서는 육로가 단절되고 수로마저 통하지 않아, 길이 끊긴 채 겹겹이 포위되었는데 …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왕(先王)의 법을 준수하고 지난날의 근심을 거울삼아 각 포구(浦口)의 선로(船路)를 복설하여 군량의 수송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포(蛇浦)의 선척을 새로 설치하고 변장도 두어 예기치 않은 변고에 대비한다면 의주의 미곶, 사포, 선사포, 노강으로부터 광량에 이르기까지 배의 고물과 이물이 서로 맞닿고 선척이 나루에 가득하여 비단 군량을 수송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적들의 동태도 눈으로 보듯 살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sup>54)</sup>

안민선은 선사포진과 노강진을 복설하여 미곶진부터 광량진까지 수로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5)</sup> 같은 해 9월 김자점은 가도의 심세괴(沈世魁)가 수군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 염려스럽다고 하면서 선사포진과 노강진의 복설을 주장하였다.<sup>56)</sup> 이듬해인

54) 『承政院日記』 46책, 인조 13년 1월 29일 경진, “且沿邊宣沙浦老江等處 是乃自祖宗朝設立船路 以運糧餉 近來革罷邊將 無一船隻 至於丁卯之變 陸路阻隔 又不通水路 路絕重圍 … 伏願殿下 遵先王之法 創前日之患 復設各浦船路 以備運糧之一助 新設蛇浦船隻 而亦置邊將 以備不虞之變 則自義州彌申蛇浦宣沙浦老江 至廣梁 舳艫相連 舸艦迷津 不但糧餉歸輸之便也 賊中事機 可在吾目中矣 豈不幸哉”

55) 안민선은 선사포진과 노강진을 복설하는 동시에 사포(蛇浦)에 새롭게 진보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사포에 진을 설치하는 문제는 이후 숙종대에 다시금 제기되었다.

56) 『承政院日記』 50책, 인조 13년 9월 27일 갑술; 『仁祖實錄』 권31, 인조 13년 9월 27일 갑술

1636년(인조 15)에는 평안병사 유림도 선사포진과 노강진의 복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가도에서 변란이 일어나며 평안도 연안의 백성들이 한인에게 붙잡혔기 때문이었다.<sup>57)</sup> 결국 유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선사포진과 노강진이 복설되었다.<sup>58)</sup>

이렇듯 혁파된 세 첨사진이 다시금 복설 되었던 배경은 모문룡 사후 불안정한 가도의 상황으로 인하여 평안도 연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었다.<sup>59)</sup> 통제되지 않은 한인들이 평안도 연안을 약탈하자 조선은 수군첨사진을 복설하여 평안도 연안을 방어하려 하였다.

1637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의 압박으로 명의 선박이 평안도 연안을 침입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였다. 명의 선박인 한선(漢船)은 1637년부터 명이 멸망한 1644년(인조 22) 시기까지 평안도 연안에 출몰하였다. 조선은 1641년(인조 19) 이 한선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였는데, 이는 명·청 전쟁 파병을 해명하기 위함이지 명과의 군사 공조를 위한 접촉은 아니었다.<sup>60)</sup> 오히려 조선은 1637년부터 1641년 이후까지 줄곧 한선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는 이전 동강진 시기부터 한인들이 보여 왔던 행태에 대한 불안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군량선을 한선에게 약탈당할 것을 염려하였고,<sup>61)</sup> 한인의 동정을 살핀 후에 호위하여 수송하도록 하며 한선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sup>62)</sup>

57) 『承政院日記』 51책, 인조 14년 3월 8일 계축

58)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3월 8일 계축

59) 이 시기 동강진과 요민의 폐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경섭, 「1627~1637년 조선의 遼民 대책과 토벌론」, 『한국학연구』 66, 2022 참조

60)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256~257쪽; 자세한 조선-명의 비밀접촉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 참조

61) 『承政院日記』 64책, 인조 16년 3월 26일 기축; 『備邊司謄錄』 5책, 인조 16년 3월 26일

62) 『承政院日記』 64책, 인조 16년 3월 27일 경인; 『備邊司謄錄』 5책, 인조 16년 3월 27일

나아가 한선으로 인해 화가 닥칠 것이라는 인식도 보였다.<sup>63)</sup> 이렇듯 조선은 청의 감시 속에서 자신들이 명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혹시 모를 한선의 약탈에 대비하였다.

1642년(인조 20) 10월 명과의 비밀 접촉이 발각된 이후 조선은 한선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청북 수군방어사를 설치하였다.<sup>64)</sup> 1642년 11월경에 민응건(閔應騫)을 선천부사로 임명하고 이를 청북 조방장이라고 칭하였는데,<sup>65)</sup> 이후 청북 조방장을 청북 수군방어사로 승격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후 발생한 한선의 침입과 그 대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43년(인조 21) 8월경에 장자도에 한선 9척이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선천 방어사 민응건이 이를 보고하였고, 이때 비변사에서는 수군의 대오를 정돈하고 군병을 모집하여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sup>66)</sup> 한선은 사자도(獅子島)에 침입하여 5인을 납치하고 운량선(運糧船) 1척까지 탈취하였다.<sup>67)</sup> 이에 방어사 민응건은 한선을 추격하여 교전하였고, 한인 9명과 한선 1척을 생포 및 노획하고 나포된 양곡선 1척을 되찾았다.<sup>68)</sup> 나머지 한선은 장자도와 거우도 등지에 있다가 서쪽으로 퇴각하였다.<sup>69)</sup>

이 사건에 대해 청은 칙서를 보내 은 5백 냥을 하사하며 관련자들을 포상하도록 하였다.<sup>70)</sup> 본래 조선에서 방어사 민응건과 미곶첨사

63) 『承政院日記』 64책, 인조 16년 3월 27일 경인; 4월 27일 경신

64) 『仁祖實錄』 권43, 인조 20년 10월 19일 병진

65) 『大東地志』 권24, 平安道清北, 宣川; 『承政院日記』 83책, 인조 20년 11월 17일 계미

66) 『承政院日記』 85책, 인조 21년 8월 15일 병자

67) 『承政院日記』 85책, 인조 21년 8월 16일 정축

68) 『仁祖實錄』 권44, 인조 21년 8월 18일 기묘; 『承政院日記』 85책, 인조 21년 8월 22일 계미

69) 『承政院日記』 85책, 인조 21년 8월 29일 경인; 9월 3일 갑오

70) 『仁祖實錄』 권44, 인조 21년 10월 8일 무진

김여기(金礪器)만 포상하였는데, 청은 민응건과 김여기만 포상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투에 참여한 다른 장수들도 모두 포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철산부사 김생려(金生麗)·용천부사 유하(柳遐)와 광산군수 이구(李球)·선사포첩사 김인(金仁)이 모두 논상되었다.<sup>71)</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논상하는 과정에서 철산부사 김생려와 용천부사 유하가 배를 타고 한선을 나포하였고, 탈취된 양곡선이 있던 곳에는 광산군수 이구와 선사포첩사 김인의 배가 한선과 접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안도 수군이 한선 포획과 양곡선의 탈환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분담하여 교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미곶첩사와 선사포첩사 등의 수군첩사와 철산부사·용천부사·광산군수 등의 연안 수령들이 청북 수군방어사로 통일된 지휘체계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평안도 수군진에 다시 변화가 나타난 것은 1676년(숙종 2)이었다. 청의 대통관(大通官) 이일선(李一善)이 신미도와 가도의 거리를 물으며 관심을 보이자, 이와 관련하여 조정에서 가도에 진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이전에 이완(李浣)이 가도에 진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청이 진을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사포진과 노강진을 각각 가도와 신미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72)</sup> 절충안으로 두 진의 첩사가 각각 섬에 들어가 형편을 살피게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선사포진을 가도로 이설하고 노강진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선사포진을 가도로 이설하면서 진의 소속된 수군도 가도로 옮겨 예속시켰다. 또한 신미도에는 방목하는 말을 옮기고 선사포첩사가

71) 『承政院日記』 86책, 인조 21년 10월 10일 경오; 13일 계유

72)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3월 25일 정미; 『備邊司謄錄』 32책 숙종 2년 3월 26일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여 가까운 목장의 목자(牧子) 및 둔군(屯軍)이 수군을 겸하도록 하였다.<sup>73)</sup> 이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선사포진이설거행절목(宣沙浦鎭移設舉行節目)」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sup>74)</sup>

첫 번째, 진을 이설한 목적이다. 진을 옮기는 이유가 해방을 위해 멀리 망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연안에 위치한 가도의 지리적 특성상 요망(瞭望)에 유리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봉수를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방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그 보고 및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진에 봉수를 설치하고 봉수군은 섬 안에 사는 백성으로 충정하며 해안을 항상 기찰(譏察)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즉시 방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북 수군방어사를 설치하여 청북 연안 방어의 지휘체계를 확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사포진의 병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다. 진 부근의 무과 출신들을 군관으로 소속시켰으며, 선사포첨사가 감목관을 겸하게 하여 목자들도 그 휘하에 부대로 편성하게 하였다. 또한 별도로 섬 내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이들의 본역을 면제하여 본 진에만 소속시켜 다른 아문에서 침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삼남 수군의 예를 따라 보인을 넉넉히 지급하였다. 이처럼 선사포진에 병력을 확보하여 연안 방어를 강화하려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첨사 소속 관하에서 중죄를 범한 자는 병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당시까지 아직 평안병사가 겸수사로서 수군진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선사포진의 이설로 인해 괄산(郭山) 선사포<sup>75)</sup>에 정배한 죄

73)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8월 9일 기미

74) 『備邊司謄錄』 32책, 숙종 2년 9월 12일

75) 선사포진은 선천과 괄산 사이에 위치하여 조선전기에는 선천에 속하였으나 1656년에는 괄산으로 이속된 상태였다. 『東國輿地誌』 권9, 平安道, 郭山郡

인 홍제형(洪濟亨)을 곽산 능한산성(凌漢山城)에 정비하겠다는 언급은 곽산에서 가도로 선사포진의 이설이 실행되었음을 보여준다.<sup>76)</sup> 그러나 이설한 지 5년 만인 1681년(숙종 7)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 가도에 방문하게 되자 이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sup>77)</sup> 영의정 김수항(金壽恒)과 이조판서 김석주(金錫胄) 등은 선사포진의 이진 및 증수(增修)를 청이 힐문할 것이라 염려하였고 구진(舊鎭)으로 철수를 주장하였다. 우의정 이상진(李尙眞)은 이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숙종은 결국 선사포진을 철수하여 옮기도록 하였다.

이처럼 가도로 옮겼던 선사포진을 철수하도록 결정되었는데, 김수항과 김석주의 주장대로 구진으로 철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사포진을 가도로 이설할 당시 가도 맞은편의 사포(蛇浦)<sup>78)</sup>에 진을 설치하여 성원을 삼으려 하였다는 내용이 주목된다.<sup>79)</sup> 이러한 시도는 평안감사 민종도가 사포에는 경작할 땅이 없고 근처 둔전에도 여유가 없다고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다만 이설 당시에 이러한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은 사포가 차기 후보지로 거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도에서 사포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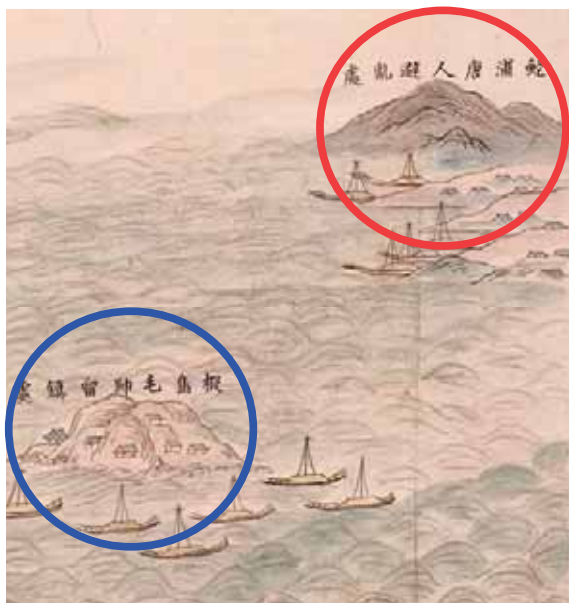
76) 『承政院日記』 259책, 숙종 3년 4월 17일

77) 『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3월 20일 계유

78) 사포(蛇浦)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가도와 사포가 서로 호응하는 곳이라는 언급과 모문룡이 가도와 사포에 진을 설치하여 왕래하였다는 점, 후금군이 가도의 모문룡을 공격하기 위해 향하였다는 언급 등을 통하여 철산에서 가도로 향하기 위해 거쳐 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포의 위치를 가도 맞은 편 연안으로 설정하였다. 관련하여 <그림 2> 참조. 『光海君日記』 권184, 광해 14년 12월 11일 임신;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11월 27일 정축; 권20, 인조 7년 2월 17일 계묘

79)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10월 7일 병진

〈그림 2〉 1624년 해로 사행길의 가도와 사포



\* 가도(좌)와 사포(우)  
 \* 출처 : 『航海朝天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본관7952

또한 1706년(숙종 32) 제작된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sup>80)</sup>에는 선사포진의 위치가 철산 연안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적어도 25년 이후인 1706년까지 철산의 사포로 이진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선사포진을 다시 구진으로 옮긴 이후에 다시 사포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선사포진 이설에 관한 기록은 이후 나타나지 않고, 사포에도 진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던 만큼 선사포진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포로 곧장 이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80) 「遼薊關防地圖」는 고지도 중 작자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게 표시된 희귀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74~77쪽 참조

〈그림 3〉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의 선사포진 위치



\* 출처 : 『遼薊關防地圖』 규장각 소장, 古大4709-91

한편 1683년(숙종 9)을 전후로 평안도 연안 방어의 배경이 조선과 명·청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에서 황당선의 침입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은 1683년 대만의 정씨 세력이 평정된 이후 출몰하던 황당선을 단순한 민간 어채선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sup>81)</sup> 이후 청의 전해령(展海令)으로 민간인의 해상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황당선의 침입이 활발하게 나타나자 연안 방어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바로 평안도 연안 방어 전략이 군선을 활용하여 침입자를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에서 상륙을 허용한 이후 육군과의 연계 작전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안 방어 전략이 침입자의 상륙을 허용한 후 육군과의 연계 작전으로 변화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황당선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은 1683년 이

81) 남호현, 「18세기 조선의 위기의식과 海方 논의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268~269쪽; 또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황당선이 약탈을 행하는 해적이 아닌 어채를 목적으로 하는 ‘상국인(上國人)’이었기에 함부로 토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문기, 「황당선(荒唐船)과 조청(朝淸) 어업분쟁, 1684-1735」,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2023, 63쪽

후 출몰하였던 황당선을 적이 아닌 민간 어채선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조선의 입장에서 해상 교전을 통한 적극적인 요격이 어려웠다. 그나마 확실히 수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섬이나 육지에 상륙하였을 경우였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곧 수군진의 육군진화로 이어졌다. 수군진과 육군진의 가장 큰 차이는 군선의 유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 요격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군선의 필요성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곶진의 육군진 전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곶진은 수군첨사진으로 승격되었으나 이후 『속대전』에는 미곶진이 병마첨절제사진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1678년(숙종 4) 설치한 소모별장을 병마첨절제사로 승격시켰다는 언급이 주목된다.<sup>82)</sup> 실제로 12월 6일에 평안감사 김덕원의 건의로 의주의 양하둔(陽下屯)과 용천의 미곶둔(彌串屯), 선천의 청강둔(淸江屯), 철산의 장자둔(長者屯) 등에 소모별장을 설치하였다.<sup>83)</sup> 따라서 적어도 1678년에서 『속대전』이 편찬되었던 1746년 사이에 육군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안도 남부의 연안 방어체제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황당선은 산동반도에서 황해도로 곧바로 이어지는 항로를 통해 평안도 남부 연안과 황해도에 주로 출몰하였다.<sup>84)</sup> 이는 서해에서 활동한 것이 주로 산동반도의 주민이었기 때문이다.<sup>85)</sup> 이에 따라 황해도와 평안도 남부 연안 인근에 황당선이 출몰하였고, 청남 지역에도 수군방어사가 설치되어 청북 지역과 같은 방어체제가 확립되었다.

82) 『大東地志』 권24, 平安道淸北, 龍川

83)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 12월 6일 임신

84) 서인범, 「청 강희제의 開海政策과 조선 西海海域의 荒唐船」, 『이화사학연구』 50, 2015, 366쪽

85) 김문기, 앞의 논문, 2023, 51~56쪽

직접적으로 청남 수군방어사 설치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1682년(숙종 8) 대동강 하구 남쪽에 위치한 초도(椒島)에 황당선이 정박한 일이었다.<sup>86)</sup> 허사진(許沙鎭)<sup>87)</sup>의 첨사 장후량(張後良)이 100여 명이 타고 있는 황당선 9척이 초도에 정박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숨겼고, 장련현감 김수능(金壽能)만이 보고하였다. 장후량은 군율로 처단하는 것에 대해 조정 전체가 동의하였고, 장후량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 5일에 효시되었다.<sup>88)</sup> 또한 보고하지 않은 풍천부사 정익훈(丁益勳)을 나국하는 동시에 황당선을 보고한 김수능을 논상하였다.<sup>89)</sup>

평안도 남부와 황해도 북부의 경계 인근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그 해 9월 광량첨사에게 수군방어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또한 광량의 수군방어사가 청천강 이남의 평안도 연해 고을 10개와 노강진, 그리고 장산곶 이북의 황해도 연해 고을 4개와 허사진을 관할하도록 하였다.<sup>90)</sup> 이후 1686년(숙종 12)에는 광량첨사를 본래대로 되돌리고 삼화현령을 부사로 승격시켜 청남 수군방어사를 겸하게 하여 청남 수군방어사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sup>91)</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장산곶 이북 황해도 연해 고을인 장련(長連)·은율(殷栗)·풍천(豐川)·안악(安岳)과 허사진의 군선을 청남 수군방어사에게 소속시킨 것이다. 이미 7년 전인 1675년(숙종 1)에 황해도의 소강진(所江鎭)의 첨사를 수군방어사로 격상하여 허사진을 비롯한 황해도 수군진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장산곶 이북 연안을 별도로 평안도의 수군방어사에 이속시킨 것이다.

86) 『肅宗實錄』 권13, 숙종 8년 5월 9일 병진

87) 허사진(許沙鎭)은 대동강 하구 남쪽에서 광량진과 마주 보는 진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사이의 물길과 대동강 하구를 지키는 수군진이다.

88) 『承政院日記』 291책, 숙종 8년 6월 5일 신사

89) 『承政院日記』 291책, 숙종 8년 6월 3일 기묘

90) 『肅宗實錄』 권13, 숙종 8년 9월 13일 정사

91) 『肅宗實錄』 권17, 숙종 12년 6월 13일 을축

이는 도의 경계인 대동강 하구 일대의 연안 방어체계를 확립하여, 초도 사건처럼 황당선 등이 대동강으로 향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1689년(숙종 15)에는 청남 수군방어사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방어사 휘하에 직속 수군이 편제되어 있지 않아 노강진과 광량진의 군병만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취상(尹就商)은 삼화의 청남 수군방어사가 수군이 없이 방어사의 명목만 갖고 있어 방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sup>92)</sup> 그는 해결책으로 청남 지역 영장제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그 개편안은 전영(前營)에 소속된 강서(江西)를 후영(後營)으로 옮기고, 후영에 소속된 삼화(三和)를 독진(獨鎭)으로 하여 별영장(別營將)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연안에 적이 침입할 경우 소속 군병을 이끌고 연안 방어를 전담하고 동시에 육로로 적이 침입하였을 때에는 별영장으로서 상부의 지휘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윤취상의 주장이 수용되어 삼화가 독진이 되었다.<sup>93)</sup> 이렇게 삼화부사는 청남 수군방어사와 별영장을 겸하여 수륙의 방어를 모두 겸하게 되었다.

92) 『備邊司謄錄』 43책, 숙종 15년 3월 18일; 윤취상은 1685년(숙종 11) 12월에 광량첨사에, 1686년(숙종 12) 6월에는 삼화부사에 제수되어 계속 수군방어사를 지냈기에 새로 설치된 수군방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承政院日記』 312책, 숙종 11년 12월 12일 무술; 316책, 숙종 12년 6월 14일 병인

93) 『備邊司謄錄』 54책, 숙종 30년 4월 4일; 55책, 숙종 30년 6월 3일; 『承政院日記』 418책, 숙종 30년 5월 30일 무진

#### 4. 평안도 연안 방어 강화 논의와 연안 방어체제의 실제

18세기 초에는 방·병선 증강 및 전선 배치, 방어영 단위의 수조(水操) 시행과 같은 평안도 연안 방어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704년(숙종 30) 윤취상은 청남 수군방어사가 유사시에 6척의 배로만 막아야 한다며 군선의 수를 지적하였다.<sup>94)</sup> 1707년(숙종 33)에는 사행을 다녀오며 평안도를 경유하였던 부사 박태항과 서장관 이정제(李廷濟)가 평안도의 군정을 지적하면서 전선 건조 주장을 제기하였다. 특히 박태항은 선천의 수군방어사가 병선 1척과 방패선 1척뿐이었고, 소속된 선사포진에도 병선 1척과 방패선 2척만 있어서 급할 때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sup>95)</sup> 이후에도 다시 전선 건조 주장이 제기되었다. 1727년(영조 3)에는 지평 이정박이 청남 방영에는 방패선 3척과 병선 3척을 노강진과 광량진에 분속하고, 청북 방영에는 방패선 3척과 병선 2척 군수선 3척을 선천부와 선사진에 분속하였을 뿐이라면서 삼남의 해읍(海邑)처럼 읍마다 전선을 배치하고 소나무 수급지를 지정하도록 주장하였다.<sup>96)</sup> 이러한 주장은 결국 평안도의 수로가 큰 배를 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sup>97)</sup> 후술하겠지만 방·병선의 증강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안도 수군의 수조 역시 1723년(경종 3)까지 수로가 험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sup>98)</sup> 이에 따라 평안도 수군에도 수조

94) 『備邊司謄錄』 54책, 숙종 30년 4월 4일

95) 『備邊司謄錄』 58책, 숙종 33년 3월 26일

96) 『承政院日記』 637책, 영조 3년 4월 29일 을묘

97) 『備邊司謄錄』 65책, 숙종 39년 5월 5일

98) 『備邊司謄錄』 74책, 경종 3년 2월 19일

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727년(영조 3)에는 선천부사를 역임하였던 남익화(南益華)가 선천방어영에 수조하는 규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삼남 수영처럼 봄가을에 수조할 것을 청하였다.<sup>99)</sup> 삼화 방어영 역시 이전에 수조가 행해진 것이 없어서 수조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다.<sup>100)</sup> 다만 평안도는 연안 방어 전략의 변화로 인한 해상 전투의 필요성 감소와 군선 수가 단약하였다는 측면을 생각해볼 때, 삼남에 비해 수조의 의미가 비교적 적었다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1722년(경종 2)에는 평안감사 권엽(權爍)이 평안도 방어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평안도 수군방어영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01)</sup> 나아가 권엽은 수군진까지도 모두 육군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편안에 대해 비변사가 청남 수군방어영 혁파에 반대하면서 청북 수군방어영과 선사포진만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결국 1년 만인 1723년(경종 3) 권엽의 후임인 평안감사 이진검(李眞儉)의 건의에 따라 구제로 복구되었다.<sup>102)</sup> 특히 수로의 경우 선사포진을 혁파한 뒤로 의지할 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권엽의 평안도 수군 혁파 주장은 당시 평안도 연안 방어의 전략이 상륙을 허용한 이후 육군과의 연계 전략으로 변화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 복설된 사실은 당시 평안도 수군진이 연안 방어뿐만 아니라 수로의 기능 또한 중요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99) 『承政院日記』 632책, 영조 3년 2월 9일 병인

100) 『承政院日記』 854책, 영조 13년 8월 5일 신유; 그러나 『승정원일기』만으로는 통제영과 수영에서 시행된 수조조차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작은 단위인 방어영의 수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18세기 초부터 방어영에도 수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연구』, 역사비평사, 2019, 258쪽; 272~274쪽

101) 『景宗實錄』 권6, 경종 2년 3월 13일 무술

102) 『景宗實錄』 권11, 경종 3년 2월 8일 무오

최종적으로 18세기 말의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平安監營所管軍總兵制成冊』<sup>103)</sup>(이하 감영성책)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감영성책의 작성 연도는 불명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각각 지휘명령체계, 병력의 편제 및 규모, 그리고 군선 순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평안도 수군의 지휘체계이다. 다음의 <표 2>는 감영성책과 병영성책의 편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평안 감·병영 소관 군제

사료	편제		
감영성책	중군(中軍)		
	수군방어사 (水軍防禦使)	삼화부사(三和府使)	
		선천부사(宣川府使)	
	평양성수첩영장 (平壤城守堞營將)	전영장(前營將)	상원군수(祥原郡守)
		좌영장(左營將)	삼등현령(三登縣令)
		중영장(中營將)	평양서윤(平壤庶尹)
		우영장(右營將)	강서현령(江西縣令)
		후영장(後營將)	증산현령(甞山縣令)
	평양성수첩북성영장 (平壤城守堞北城營將)	강동현감(江東縣監)	
	자모산성수첩관성장 (慈母山城守堞管城將)	자산부사(慈山府使)	
황룡산성수첩관성장 (黃龍山城守堞管城將)	용강현령(龍岡縣令)		
방수진장(防守鎭將)	보산별장(保山別將)		
	임해별장(壬海別將)		
	동림별장(東林別將)		
병영성책	방어사(防禦使)	강계(江界)	
		창성(昌城)	
		선천(宣川)	
		삼화(三和)	

10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4484

사료	편제		
	영장(營將)	전영장(前營將)	숙천(肅川)
		좌영장(左營將)	덕천(德川)
		중영장(中營將)	중화(中和)
		우영장(右營將)	순천(順川)
		후영장(後營將)	함종(咸從)
	독진장(獨鎭將)	정주(定州)	
		곽산(郭山)	
		철산(鐵山)	
		용천(龍川)	
		의주(義州)	
		삭주(朔州)	
		벽동(碧潼)	
		위원(渭原)	
		초산(楚山)	
		아이(阿耳)	
	수성장(守城將)	영변(寧邊)	
		구성(龜城)	
	방수장(防守將)	가산(嘉山)	
	영역방수독진 (鎭扼防守獨鎭)	거령(車嶺)	
		우현(牛峴)	
		유원(柔院)	
		시채(特寨)	
		천마(天摩)	
		모령(募嶺)	
		서림(西林)	
		미곶(彌串)	
		영성(寧城)	
		식송(植松)	
		양하(楊下)	
		임토(林土)	
		용연(龍淵)	
		금성(金城)	
		위곡(委曲)	
		안의(安義)	
신광(神光)			

\* 출처 : 『平安監營所管軍總兵制成冊』, 奎4484; 『平安兵營所管軍總兵制成冊』, 奎4487

\* 밑줄 및 강조 표시 저자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먼저 미곶진이 육군진으로 전환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미곶첨사는 육군진으로 전환되어 평안병사에 소속되었기에 감영성책이 아닌 병영성책에 등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곶진이 육군진으로 전환된 것은 적어도 1678년(숙종 4) 이후이며, 이후 미곶진이 신도진으로 이설되었던 1807년(순조 7) 전까지 유지되었다.<sup>104)</sup> 추가적으로 병영성책의 서림진(西林鎭)은 1749년(영조 25)에 천수진(天水鎭)이 이설된 것이다.<sup>105)</sup> 따라서 성책의 작성 시기는 서림진이 설치된 1749년부터 미곶진이 신도진으로 이설된 1807년까지 대략 18세기 후반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다음은 수군방어사와 수군진이 모두 평안감사 휘하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속대전』에서도 확인되는데, 평안도의 수군절도사가 평안감사 1명으로 감소한 것이다.<sup>106)</sup> 평안병사의 겸수사 감하(減下)가 제기된 것은 광량진첨사가 수군방어사로 승격되면서였다. 평안병사 휘하의 광량진이 수군방어사로 승격되자 평안병사의 겸수사를 감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07)</sup> 이는 기존 평안도 연안 방어의 명령체계가 평안감사와 병사가 각각 수군절도사를 겸하는 이원적인 체제에서 평안감사-수군방어사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명령체제로 확립된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천강을 기준으로 하여 평안도의 연안 방어를 청북·청남 수군방어사가 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안도 수군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17세기 중국 선박들이 연안을 침입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연해 고을과 수군진을 모두 관할하는 지휘관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104) 『純祖實錄』 권10, 순조 7년 12월 22일

105) 『備邊司謄錄』 120책, 영조 25년 8월 1일

106) 『續大典』 권4, 「兵典」, 外官職

107) 『承政院日記』 295책, 숙종 8년 11월 24일 정묘

평안감사와 병사는 국경에 인접한 평안도의 지리적 특성상 연안 방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전임 수군절도사가 없는 상황은 연안 방어를 총괄할 수 있는 지휘관의 부재로 이어졌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안도에 수군방어사를 설치하여 평안도 연안 방어를 총괄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천과 삼화의 방어영이 감영 정책과 병영정책에 모두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방어사가 수군방어사로서는 평안감사에게, 육군방어사로서는 평안병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전술하였다시피 삼화의 청남 수군방어사는 수륙의 방어를 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병력 편성에도 나타난다. 선천과 삼화의 방어영에 수군과 육군이 모두 편제된 것이다. 수군방어사를 겸한 선천부사와 삼화부사는 별도로 북방어사와 남방어사를 겸하여 휘하에 단속군과 별무사 마병·보병 등 육군 병력도 편제되어 있었다.<sup>108)</sup>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군과의 연계라는 연안 방어 전략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749년(영조 25) 「서림성제치절목(西林城制置節目)」에서도 나타난다. 바람이 거셀 때 선사진침사가 해당 진의 수군 865명을 이끌고 서림성에 입성하도록 한 것이다.<sup>109)</sup>

이어서 두 번째로, 방어영과 수군진의 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영정책에 나타난 방어영과 수군진의 병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8) 『平安兵營所管軍摠兵制成冊』, 奎4487

109) 『備邊司臚錄』 120책, 영조 25년 8월 1일

〈표 3〉 평안감영 소속 수군방어사와 수군첨사 휘하 병력 현황 (감영성체)

소속	명목	인원	비고
청남수군방어사 (淸南水軍防禦使) 삼화부사겸 (三和府使兼)	소령장관(所領將官)	25인	기고관(旗鼓官) 2인, 교련관(教練官) 2인, 병방(兵房) 2인, 별군관행수(別軍官行首) 1인, 연대별장(烟臺別將) 18인,
	표하군(標下軍)	13인	군뢰(軍牢)
	별군관(別軍官)	226인	
	연군(烟軍)	96명	
광량진첨사 (廣梁鎭僉使)	소령장관(所領將官)	1인	진대장(鎭代將)
	표하군(標下軍)	65인	기수(旗手) 40명, 차비(差備) 13명, 화병(火兵) 10명, 도훈도(都訓導) 2명
	수군(水軍)	904명	
	능로군(能嚮軍)	331명	
	사수(射手)	68명	
	포수(砲手)	68명	
노강진첨사 (老江鎭僉使)	소령장관(所領將官)	1인	진대장(鎭代將)
	수군(水軍)	442명	
	능로군(能嚮軍)	160명	
이상 각읍군 2,373명			
청북수군방어사 (淸北水軍防禦使) 선천부사겸 (宣川府使兼)	소령장관(所領將官)	25인	선대장(船代將) 1인, 기고관(旗鼓官) 2인, 교련관(教練官) 2인, 선감관(船監官) 1인, 연대별장(烟臺別將) 19인
	표하군(標下軍)	28명	군뢰(軍牢) 26명, 도훈도(都訓導) 2인
	수군(水軍)	1,283명	
	능로군(能嚮軍)	128명	
	사수(射手)	737명	
	군관(軍官)	352명	
	연군(烟軍)	108명	
선사포진첨사 (宣沙浦鎭僉使)	소령장관(所領將官)	12인	진대장(鎭代將) 1인, 기고관(旗鼓官) 1인, 교련관(教練官) 1인, 파총(把總) 1인, 초관(哨官) 6인, 집사기패관(執事旗牌官) 2인
	표하군(標下軍)	58명	
	장하군(將下軍)	29명	
	포수(砲手)	111명	
	사수(射手)	333명	
	당보군(塘報軍)	116명	
	능로군(能嚮軍)	188명	

소속	명목	인원	비고
	화포군(火砲軍)	30명	
	주사난후친병 (舟師攔後親兵)	61명	
	기파관(旗牌官)	100인	
	군관(軍官)	100명	
			이상 각읍군 3,762명

\* 출처 : 『平安監營所管軍總兵制成冊』, 奎4484

감영정책에 따르면 청북 수군방어사는 휘하에 수군 1,283명과 능로군 128명, 사수 737명을 비롯한 총 2,636명의 병력이 편제되었고, 청남 수군방어사는 별군관 226명을 제외하면 별도의 병력이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같은 시기 『관서양역실총(關西良役實總)』(1759)<sup>110)</sup>을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관서양역실총』에는 삼화방어영의 수군이 모두 광량진과 노강진에 분속되어 있으며, 이는 1704년에 윤취상이 언급한 바와 일치한다.

수군침사진에는 주로 수군과 능로군을 중심으로 병력이 편제되었는데, 대체로 『관서양역실총』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선사포진의 포수 111명, 사수 333명을 비롯한 총 1,126명이 『관서양역실총』과 동일하며, 노강진과 광량진 역시 포수·사수와 화병·도훈도·차비 등의 수가 일치한다. 또한 노강진과 광량진의 수군과 능로군은 각각 442명과 160명, 904명과 331명인데, 이는 『관서양역실총』에서 삼화방영에 기재된 수와 동일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화의 수군이 노강진과 광량진에 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11)</sup> 또한 특징적인 것은 선사포진의 병종 구성이다. 다른 진과 달리 ‘수군’ 병종이 편제되지 않고 사수와 포수로만 편성되어 있다.

110) 『關西良役實總』, 奎17262

111) 다만 『關西良役實總』에서는 노강진과 광량진 자체의 수군과 능로군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에, 감영정책의 노강·광량진 수군 및 능로군의 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 화포군(火砲軍)과 주사난후친병(舟師攔後親兵)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노강·광량진과는 다른 특징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평안도의 군선이다. 다음 <표 4>는 『속대전』과 감영성책,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나타난 군선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평안도 군선 현황

출전	군선 소속	防船	방선	兵船	병선	伺候船	사후선	船舫船	거도선	汲水船	급주선	挾船	현선	過涉船	과섭선	軍需船	군수선	瞭望船	요망선	募船	모선	
		속대전	미곳진				2		1					1								
	선사포진	2		1	6																	
	선천	1		1	3																	
	노강진	1		1	1					1												
	광량진	2		2						3												
감영성책	선사포진	2		1						5				2	1							
	선천	1		1						5												
	노강진	1		1	1					1									1			
	광량진	2		2						3												1
고사신서	미곳진				2		1					1										
	선사포진	2		1	6																	
	선천	1		1	3																	
	노강진	1		1	1					1												
	광량진	2		2						3												
만기요람	선사포진	2		1						5						1						
	노강진	1		1						1									1		1	
	광량진	2		2						3												1

\* 『續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平安監營所管軍總兵制成冊』, 奎4484; 『攷事新書』 권9 「武備門」, 海防舟楫; 『萬機要覽』 「軍政篇」 4, 舟師

<표 4>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선(戰船)이 없이 방선(防船)과 병선(兵船)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방선, 즉 방패선(防牌船)은 병선을 전투선으로 개량한 것으로, 주로 서해에서 운용되었다.<sup>112)</sup> 방선이 서해안에서 주로 운용되었

112) 김재근, 『朝鮮王朝軍船研究』, 일조각, 1977, 210~212쪽

던 것은 전선보다 탑승 인원이 적어 출동도 빠르고 흡수(吃水)도 낮아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에서 출동 가능한 시간이 전선보다 길었기 때문이다.<sup>113)</sup>

군선의 숫자 또한 주목된다. 감영성책과 『속대전』의 방·병선의 수가 일치하며, 1771년의 『고사신서(攷事新書)』와 1808년의 『만기요람』과도 역시 동일하다.<sup>114)</sup> 이는 1707년(숙종 33)과 1727년(영조 3)에 각각 박태항(朴泰恒)과 이정박(李挺樸)이 언급한 방·병선의 총수와도 일치한다.

한편 1771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sup>115)</sup> 『동국문헌비고』에서 삼화부사를 겸하는 방어사와 속진 광량진·노강진의 군선 수는 총합 방선 2척과 병선 2척, 사후선 1척과 급수선 4척으로 위의 표와 동일한 수치이다. 『동국문헌비고』에는 추가적으로 모선 1척과 요망선 1척도 표기되어 있어서 감영성책과 부합한다. 한편 선사포진에는 방선 1척과 병선 1척으로 위의 표와 동일하나, 선천 방어영의 방·병선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sup>116)</sup> 19세기 초의 군선 현황을 기록한 『선안(船案)』 역시 청남 방어영 소관으로 광량진에 방선 2척과 병선 2척, 노강진에 방·병선 1척씩 보유하여 총합 방선 3척과 병선 3척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의 표와 동일한 군선 수를 보여주고 있다.<sup>117)</sup>

113) 송기중,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183쪽

114) 다만 『萬機要覽』에는 선천에 군선이 할당되지 않았고, 수군방어사도 삼화부사만 언급되어 있다. 1785년 『大典通編』까지는 선천과 삼화부사가 수군방어사를 겸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1785년 이후 선천방어영이 육군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5) 『東國文獻備考』 권55, 「兵考」, 舟師; 『동국문헌비고』는 삼화부사를 겸하는 평안도 방어사와 선사포진으로만 구분하여 군선을 표기하고 있기에 편의상 표가 아닌 별도로 서술한다.

116) 이는 향후 선천방어영이 육군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는 확실하지 않다.

117) 『船案』, 奎17036; 다만 『船案』에도 선천영의 군선은 물론, 선사포진의 군선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사료를 통해 평안도 수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방패선과 병선의 수가 적어도 1707년 이후 대체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 대청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서 침입 주체는 황당선 중심으로 나타났고, 연안 방어체제 역시 18세기 초 이전에 설정된 규모로 유지되었다.

## 5. 맺음말

조선은 건국 직후 평안도 연안까지 침입하는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사포진과 노강진·광량진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 방어체제의 기본 골자가 마련되었다. 이후 16세기 왜구의 침입이 남해안에 집중되면서 평안도 연안 방어는 점차 이완되었다. 그러나 17세기를 전후로 중국 선박이 평안도 연안을 침입하기 시작하며 상황은 변화하였다. 중국 선박의 평안도 연안 침입은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접경해역에서의 범월과 해랑도 수적이 문제가 되었고, 17세기 중반에는 동강진의 폐단과 한선이 등장하였다. 이어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황당선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조선은 평안도 연안으로 침입하는 중국 선박을 저지하기 위해 연안 방어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17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접경 해역이었던 청천강 이북 연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안 방어체제의 정비 또한 청천강 이북 연안에 집중되었다. 미곶진과 청북 수군방어사의 설치, 선사포진의 이설 및 증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17세기 말에 이르러서

는 황당선이 평안도 남부와 황해도 지역에 침입하자, 평안도 남부 지역의 연안 방어 정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청남 수군방어사를 설치하여 청천강 이남을 관할하게 한 것이다. 한편 방어 전략 역시 전환되었다. 기존의 해상 전투를 통한 요격에서 육군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섬·육지 수토 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침입 주체가 수적이거나 군선에서 정체가 불명확한 황당선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18세기에는 전선 운용 및 군선 증강과 방어영 단위 수조 주장 등 평안도 연안 방어 강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선 운용 및 군선 증강은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역시 국제정세의 안정 속에서 방어 전략이 소규모 황당선을 수토하는 것에 맞추어 변화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1722년에는 평안감사 권업이 평안도 수군을 혁파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안 방어의 전략이 육군과의 연계를 상징한 ‘해방(海防)’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최종적으로 18세기 말의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평안감영소관군총병제성책』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 평안감사와 병사가 각각 겸하였던 수군절도사는 평안감사 한 명으로 감하(減下)되어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그 휘하에는 청북·청남 수군방어사가 수군진을 관할하여 연안 방어를 전담하였고, 유사시에는 병사 휘하에서 육로 방어까지 겸하였다.

17~18세기 평안도 연안을 비롯한 서해 북단은 국제 정세의 여파가 미치는 최일선이었다. 이 접경해역에서는 다양한 군사·외교적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해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서해 북단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응 과정 속에서 형성된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는 18세기 서해안 연안 방어체제의 준거(準據)로 자리

잡았다. 침입 주체가 어채선을 포함하는 미확인 선박인 황당선이 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방어영 단위인 평안도 연안 방어 체제는 황해도와 충청도 등의 서해안 연안 방어의 기본체제로 자리 잡기에 적합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평안도 연안 방어체제를 수군진의 변천과 그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자료적 한계로 인하여 17세기 평안도 수군의 실체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18세기 평안도 수군의 실제에 대해서도 보다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19세기 이후 평안도 연안의 상황, 예컨대 대동강을 중심으로 평안도에서 나타난 이양선 침입 등 역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에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 『太祖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經國大典』 『續大典』 (국사편찬위원회DB) 『萬機要覽』 『續雜錄』 『東國輿地誌』 『大東地志』 (한국고전종합DB)  
『平安監營所管軍總兵制成冊』(奎4484) 『平安兵營所管軍總兵制成冊』(奎4487)  
『關西良役實總』, (奎17262) 『船案』(奎17036)  
『攷事新書』(K3-658) 『東國文獻備考』(K2-2075)  
정충신·역 노병덕, 『晚雲集』, 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 2. 단행본

-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김재근, 『朝鮮王朝軍船研究』, 일조각, 1977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 3. 논문

-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한국문화』 38, 2006  
김문기, 「황당선(荒唐船)과 조청(朝靑) 어업분쟁, 1684-1735」, 『해항도시문화 교섭학』 28, 2023  
남호현, 「18세기 조선의 위기의식과 海方 논의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문광균, 「조선후기 압록강 하안의 신도(薪島) 범월과 신도진(薪島鎭)의 설치」, 『역사와 현실』 119, 2021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대명(對明) 해로사행(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한국실학연구』 21, 2011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도서(島嶼) 문제 — 해랑도(海浪島)와 신도(薪島)를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36, 2011, 「청 강희제의 開海政策과 조선 西海海域의 荒唐船」, 『이화사학연구』 50, 2015

- 우경섭, 「1627~1637년 조선의 遼民 대책과 토벌론」, 『한국학연구』 66, 2022
-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 장정수, 「조선의 가도와 명의 동강진」, 『동북아역사포커스』 9, 2024
- 정은주, 「조선과 명의 대외관계와 사행 노정의 변화」, 『한국고지도연구』 16, 2024
- 최주희, 「16세기 말~17세기 전반 唐糧의 성격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9, 2019

〈Abstract〉

## The Transformation of Naval Garrison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oastal Defense System in Pyeongan Province, 17th–18th Centuries

Park, Jun-Hee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sugunjin (naval garrisons), the core units of the coastal defense system in Pyeongan Provinc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in the context of changing international dynamics and shifting sources of maritime threats. As Japanese pirate incursions declin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coastal defenses weakened, but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onward, renewed intrusions by various Chinese vessels—smugglers, pirates, Hansŏn, and Hwangdang-sŏn—brought maritime defense back into focus. Joseon sought to respon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sugunjin and the authority of sugun bangŏsa (naval defense commanders). Situated at the border among Joseon, Ming, and Later Jin, the northern coast of the West Sea became a key site reflecting Joseon’s strategic responses to regional instability. By tracing the evolution of sugunjin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is paper elucidates the practical operation of Joseon’s coastal defense system and its role as the institutional model for later defenses in Hwanghae and Gyeonggi Provinces. The study also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cholarship, which has focused narrowly on frontier maritime zones or individual garrisons, and offers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 maritime defense framework of late Joseon.

Keywords : Pyeongan Province, Coastal Defense System, Naval Garrisons (Sugunjin), Donggangjin, Hwangdang-seon